

저배당의 이변... ‘절대 강자’ 없다

최근 열린 ‘점 배당’ 형성 23개 경주
예상 적중한 강자 동반입상 12개뿐
“협공 경합, 선수 간 관계 파악 중요
정답이 없는 게임... 경계심 높여야”

쌍승식 2.0배 이하의 낮은 예상 배당률이 형성된 경주는 속칭 ‘점 배당’이라고 부른다. 최근 이 점 배당에서의 이변이 이슈다. 전력이나 편성만 보면 강자들의 동반입상이 유력하다고 생각했던 경주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11월 19일과 21일 열린 47회차에서 점 배당이 형성된 경주는 총 23개. 이중 팬들이나 경륜예상분석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강자들이 동반입상에 성공한 경주는 12개로 절반이 조금 넘는 비중이다. 반대로 말하면 전체의 절반 가까운 경주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특히 20일은 점 배당 예상이 전체 13개 경주 중 10개로 많았는데 그 중 6개 경주에서 강자들이 무너졌다. 강자들이 무너지면서 쌍승 1511.9배가 나온 20일 창원2경주는 인기순위 1위였던 오기호가 승부시점을 늦추자 후미를 마크한 인기순위 2위 강진원이 차분히 따라가며 동반입상이 가능해 보였다. 그런데 강진원이 이를 기다리지 않고 3코너에서 쫓히기 승부를 벌이면서 두 선수가 과도한 경쟁을 하다 모두 등위로 밀려나는 결과로 나타났다. 대신 인기순위 5위 류근철, 7위 김재웅이 역습에 성공하며 파란을



광명스피돔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선수들. 최근 강자들의 동반입상이 확실해 낮은 배당을 형성했던 경주에서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날았다. 당시 오기호, 강진원의 동반입상은 쌍승 최종 배당률이 1.7배였다.

심지어 21일 광명7경주 특선결승에서는 18차례 동반입상한 정종진, 황인혁이 무너지면서 1.6배의 예상 점배당이 아닌 5.3배가 나왔다.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은 입상후보의 윤곽이 보이고 있는 편성에서 강자들의 동반입상에 대한 지나친 믿음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이변에 경륜 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경륜은 ‘정답이 없는 게임’이다. 속도를 겨루는 경주가 아니라 순위만 따지기 때문에 경주 과정에

서 많은 변수가 있다. 설명이 안 되는 결과가 수시로 등장하는 게 경륜이다.

우선 저배당 편성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배당판에 2배 이하의 점 배당은 삼복, 쌍복승으로 결정해야 좋다. 인기순위 1위 선수를 중심으로 삼복승에 주력하면서 쌍복승으로 받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삼파전인 편성에서는 촉에 후착 찾기가 필요하다. 인기 선수의 실력이 워낙 좋은 경우 2, 3위 중 하나를 택일하고 4, 5위의 선수 중에서 한 선수를 택한 경주권을 동시에 구매하는 게 좋겠다.

강자 동반입상이 의심되는 편성에서는 발매마감 5분전 인기순위 1, 2위 선수 중 한 명을 제외하고 견제 없이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선수를 찾아 소액으로 배팅을 하는 것이 의외의 고배당을 잡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경륜위너스 박정우 예상부장은 “연대와 협공에 의한 경합 편성에서는 이들의 전략 외에 혼란지 소식이나 선수들 간 관계 등도 잘 파악해야 한다”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점 배당에 대한 경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가운데)이 차세대 전기모터보트 개발 사업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자문위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차세대 전기모터보트 개발 자문위 위촉식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11월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문화센터에서 차세대 전기모터보트 개발 사업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전기자동차학 교수, 선박연구·산업안전센터 연구원 등 5명의 전문가들이 위임장을 받았다. 조현재 이사장은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고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SG경영의 일환으로 전기모터보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전기모터보트 개발 사업은 2023년까지 최종 개발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KSPD 카누선수단, 청소년 교육 재능기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11월 22일과 23일 서울 송파구 석촌중학교 체육관에서 카누 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석촌중학교 1학년 학생 130여명이 참가했으며 KSPD(국민체육진흥공단) 카누 선수단이 안전수칙 교육, 준비운동, 기본자세와 패들 사용법, 카누 체험 등을 실시했다. 카누 체험교실은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재능기부 프로그램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현재 카누를 비롯해 사이클, 마라톤, 펜싱, 여자축구, 다이빙, 장애인스키 등 7개 종목의 팀을 운영하고 있다.

경주사업총괄본부, 복지부 장관상 수상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11월 26일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장애인체육인들을 위한 재능기부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스포츠 다큐멘터리 ‘더 미라클’을 제작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더 미라클’은 도쿄패럴림픽 참가 선수와 감독이 역경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과정과 선수들의 애환을 담았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강력한 스타트’ 나종호, 신인왕전 특별경정 우승

(1671)

“A등급 유지해 연말 최종결승 도전”

11월 24일 미사리경정장에서 열린 16기 신인왕전 특별경정에서 나종호가 우승을 차지하며 상금 500만 원의 주인공이 됐다.

이날 1코스를 배정받아 출전한 나종호는 0.03초의 스타트 집중력을 발휘하며 인빠지기 전개로 초반 주도를 잡은 뒤, 이를 놓치지 않고 제일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 뒤로 찌르기 전개를 펼친 김보경(A2 28세)이 2위, 아웃코스에 출전한 염운정(B1 34세)이 휘감아찌르기로 3착을 했다.

1년6개월의 후보생 생활을 마치고 프로 선수로 입문한 신인들은 이번 신인왕전을 맞이하는 각오가 남달랐다. 치열한 경합이 예상됐고 실제로 한 치의 양보 없는 접전이 펼쳐졌다.

우승을 차지한 나종호는 프로 입문 때부터 전문가들로부터 스타트 집중력이 좋다는 평가를 들어왔다. 절정의 스타트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아직 아쉬움도 있다. 현재 통산 6승인데 성적을 분석해보면 1코스 4승, 2코스 1승, 5코스 1승이다. 1~2코스에서의 입상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코스 입상은 별로 없다. 또한 인코스를 제외한 다른 코스에서는 스타트 이후 1전에서 불안한 선회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나종호는 우승 후 인터뷰에서 스타트감에 대해 “수위, 온도, 습도 등을 참고하고 아울러 공중선까지 활용해 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우승하고 싶은 대상경주로는 “경정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랑프리 트로피”라며 “지금처럼 안정적인 경주를 통해



16기 신인왕전 특별경정에서 우승한 나종호.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A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고 더욱 노력해서 연말 최종결승에 도전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심혈관질환 환자 중 돌연사가 80~90%를 차지!

연평균 3만여 명이 겪는 심정지! 돌연사 막는 생명팔찌가 있다?



자석으로 되어 있어
위급 시 쉽게 개봉 가능!
(100% 완벽 방수)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발병 후 4분 내의
24시간 지니고 있어야 응급상황에 사용 가능해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전이 쌓여 발생하는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질병 사망원인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질병으로 발병률이 년 증가하고 있다. 연평균 3만여 명이 겪고 있지만 생존율은 고작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응급상황 발생부터 심정지까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4분이 채 되지않고 이 시간이 지나면 뇌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4분을 넘기면 목숨을 건져도 뇌기능은 정상으로 돌아오기 어렵다. 따라서 병원에서 심혈관질환 환자의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하고 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보관하는 곳은 자석의 형태로 되어있어 위급시 손쉽게 열 수 있다. 또한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어 샤워나 목욕시에도 차고 생활할 수 있다. 혈관질환 환자중 돌연사가 80~90%를 차지하므로 전조증상이 올 때 빠르게 꺼내어 사용이 가능한 에노라이프 팔찌는 골든타임 내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명품브랜드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탈 장식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에노라이프 팔찌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생명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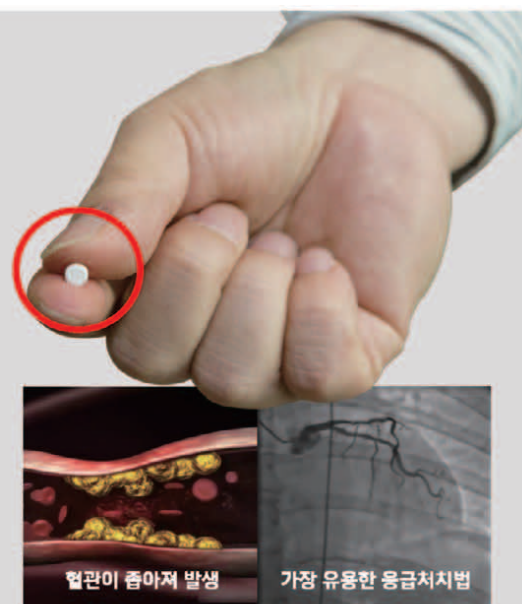
(건강정보)

생명을 살리는 니트로글리세린이 뭐길래?

니트로글리세린은 노벨이 발명한 화약의 소재로 섭취 시 순간적으로 일산화질소로 변환되어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혈관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당시 다이아몬드 공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이 맛이 달달한 니트로글리세린을 수시로 먹곤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를 먹으면 협심증 환자들에게서 발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연구가 시작되었다.

니트로글리세린의 미스터리가 밝혀지자 심혈관질환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등의 서구인들은 환호했다. 또한 수많은 제

약회사들이 심혈관질환 치료를 위해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시키는 신약 개발에 나섰다. 당시 미국심장협회는 일산화질소에 대한 발견을 심혈관계 의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평가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혀 밑에서 녹여서 접막으로 흡수 후 전신으로 신속히 작용하도록 설계된 설하제이다. 심혈관질환 등의 급성 증상 발생 시 구급차 도착 전에 스스로 사용함으로써 혈관을 순간적으로 확장시켜 위급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문제는 제품이 3mm로 작아 보관이 까다로운 것이 단점으로 알려져 있다.



혈관이 좁아져 발생

가장 유용한 응급처치법

“팔찌하나 찼을 뿐인데
든든해서 좋구나!”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에노라이프 팔찌는 꼭 필요한 상비품이며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40% 특가 행사중!

본 이벤트는 300명에 한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할인 이벤트이며 소진 시 예고없이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CRYSTALS
SWAROVSKI

고급 패키지로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1500가우스
자계 발생

상담 및
구매문의

1670-5465

YENOLIFE